

스물아홉,

파이어마커스 Fire Markers 대표

## 청년 이규동의 이야기

젊음,

도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에디터**  
(이하 에) **넓은 소방 호스나 소방 의류 등을 모아 옷과 가방을 만들어 수익금 일부를 노후화된 소방장비에 지원하는 파이어마커스(Fire Markers, 소방의 흔적) 대표 이규동 청년을 소개합니다. 창업,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오늘, 다른 선택입니다.**

**이규동 대표**  
(이하 이) **저 또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이 되고 싶어 소방학과에 지원했고,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창업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기독교 동아리인 C.C.C.에서 연 비즈니스 창업 경진대회 및 여름 수련회에서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된다', '돈에 너무 집중하지는 말되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저에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 버리고 헌신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강사분에게 창업에 대한 질문을 풀어냈더니 창업대학원에 와서 같이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선 당연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소방 공무원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창업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경영 관련서적들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 본 현실은 뉴스나 신문이 말해 주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관심을 갖고 보니 현실은 더 암담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임원이나 이사직으로 갈 확률은 0.01%도 되지 않고, 대부분은 30대 중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고 결국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치킨이나 PC방을 하는데 부족한 시장조사와 공급 포화상태로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창업 실패확률이 90%를 웃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고요. 젊을 때 경험이 득이 될 것이라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고 결심하여 부모님을 설득하는 제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는 이내 대학원 진학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등록금이었죠. 스스로 벌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동 C.C.C. 본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치우면 되려니 했는데 하루 종일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후 정말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조교로 일하면 전액 장학금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20-30대에 나름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 제가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책을 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분들에게 SNS를 통해 연락하고, 직접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생각한 것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분들의 행동력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 청년, 무엇이 과연 위험인가

**에** ■ ■ ■ 방선기 목사님이 지난 번 인터뷰(2015.12월호)에서 청년들이 Risk-taking을 하지 않음으로 자기 청춘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감히 청춘 시기에 위험부담을 각오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창업 이후 연세가 가장 힘들었나요?

**이** ■ ■ ■ 계속 힘들었습니다(웃음). 매순간이 고비였어요.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이 있어서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다들 엉망이라고 하셔서 기대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통과되었더라고요. 서류합격 후 PT에서 합격자들을 보니 1~2년, 많게는 3년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그들과는 달리 저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만큼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모든 일이 주권자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되든 안되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렇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를 개시했는데 제품이 6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저와 팀원들은 만들어지면 당연히 팔릴 줄 알았어요. 6개월의 침묵. 지금 생각해 보면 온라인 판매시 준비되어야 할 세세한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

지 않았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 사이 월세는 계속 나가고 팀원들에게 줄 돈이 없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아버지가 수술하시는 바람에 집안 사정도 어려워져 용돈마저 끊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참 암담하던 그때, 피키캐스트(Pikicast)에 저희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업사이클링, 낡은 소방 호스의 재탄생

**에** 소방 호스, 소방 의류를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왜 '소방'인가요?

**이** 원래 공공기물은 불용처리라고 해서 폐기처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승인이 나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 처리 대행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는데, 폐기업체에서도 대개 이걸 쓰레기로 간주해서 불태우든지 버리든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조건으로 쓰레기를 받는 거죠. 저희는 이걸 세척하고 재생산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바로 가방입니다. 판매수익의 일부는 펀딩을 통해 소방관에게 소방장갑을 기부합니다. 사실 국가 소방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늘 부족해서 노후된 소방장갑을 소방관들이 직접 구매합니다.



한국의 소방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방관 순직률은 1.85명으로 미국(1.01), 일본(0.7)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소방방재청(2013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7,829대 소방차량 중에 1,654대가 내구 연한을 넘겼고 구급차량의 노후화는 21.3%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방관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복의 경우 최근 신형 방화복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률은 아직 48%에 불과하며, 나머지 52%는 내구 연한이 지난 구형 방화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소방방재청은 노후장비의 교체 예산만 매년 87억씩 5년간 4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값비싼 소방장비를 교체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1300:1.

한 명의 소방관이 평균 1300명의 안전을 책임진다.

1300명의 시민이 1명의 소방관을 응원하는 날까지



저는 '소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초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디자인위크에서 '소방의 흔적, 스타일이 되다'를 주제로 다양한 패션용품을 만들어 소방 패션쇼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한국은 사실 소방관의 고마움을 알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문화 콘텐츠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좀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시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에 ■ '사업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건 어떤 걸까?'라는 물음에 하나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윤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세상을 가꿔가는 것,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업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창업이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랍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 저도 처음에는 이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청년이니깐요. 하지만 항상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언론에서 저희를 좋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건 감사하지만 동시에 거품이라고도 생각해요. 앞으로도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 ■ 인터뷰 감사합니다. ☺